

## 산골마을에 활기 불어넣는 칠순 이장님

박용두 · 신정순 부부  
경남 고성군 개천면 나선리

경남 고성군 개천면 나선리 나동마을의 고령농 박용두(71세)씨의 전직은 교사다. 약 30년간 서울에서 고교에 재직하며 사회를 가르치다가 1997년 정년은퇴하고 귀향했다. 그 정도의 경력이라면 두 부부가 노후에 먹고 살 만큼 연금이 나오려면 조그만 텃밭도 아닌 무려 3천 평의 전답에 농사를 짓고 산다.

### 서울에서 교직 정년은퇴하고 바로 귀향

“처음에는 선친이 남긴 1천 평으로 시작했습니다. 경험이 없었지만 동네사람들 하는 대로 따라서 콩, 마늘, 양파, 감자, 옥수수 등을 심었죠. 다행하게도 첫해부터 작황이 좋았어요. 이 동네는 전부 우리 박씨 집안이 모인 집성촌이어서 적응하는데 어려움은 없었습니다.”

박씨는 이 마을에서 태어나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살았다. 가까운 마산으로 전학가면서 떠났다가 그 후 오랜 타향생활을 접고 50년 만에 돌아온 것이다. 지금 25가구 44명이 거주하는 산골마을인데도 삼사십대의 젊은이가 6명이나 있다. 젊은이들은 농사를 하면서도 지역에 1년 내 건축일이 끊이지 않아 부지런하기만 하면 수입도 괜찮다고 했다.

그런데도 박씨는 고희의 나이에 이장을 맡아 획



▲ 손녀딸과 집마당에서

기적인 변화를 주도하고 있다. 2000년도에 이장으로 선출된 박씨는 '탈오지 마을'이라는 슬로건 아래 3개년 5대 계획을 세웠다. 그 중의 하나로 작년에 농림부로부터 녹색농촌체험마을로 지정받는 쾌거를 올렸다. 또 산림청으로부터 산촌종합마을로도 지정됐다. 그가 혼자서 발로 뛰며 이뤄낸 성과였다.

“여기는 자연경관이 수려한 산촌마을입니다. 판매 없는 훌륭한 정신문화도 갖고 있어요. 여자들이 삼강오륜을 지키자는 뜻으로 '삼오계'를 하는데 각자 생일날이 되면 집집마다 음식을 나눠먹는 풍습으로 오랜 전통으로 이어져 왔습니다.”

## 마을이장 맡아 사람들의 사고 바꾸며 적극 변화모색

마을달력을 제작한 그의 발상도 놀라웠다. 그의 집 안방에 걸려 있는 달력을 보니 과연 특이했다. 그림의 배경이 자신의 마을이고 모델은 동민들이었다. 여러 장의 스냅이나 단체사진들을 모자이크해서 배열해 놓았는데, 날짜판 밑에는 동네이름과 주소, 대표전화번호가 인쇄돼 있었다. 이것을 동민들에게 배부할 뿐만 아니라 출향인사들이나 외지에 나간 가족들에게도 보내준다고 했다. 동민들은 매일 자신들의 모습과 익숙한 산골 풍경을 보면서 대견해 할 것이고, 타향에 간 가족이나 출향인사들은 고향에 대해 더욱 애정을 가질 터였다.

“저는 시골사람들의 사고를 바꿨습니다. 지금도 ‘돈 들어서 왜 그렇게 하느냐? 차라리 그 돈으로 술이나 사먹지’ 하는 소리를 듣기도 합니다.”

그는 동민전화번호부라며 투명비닐접착제로 양쪽을 코팅한 A4용지를 보여주면서 말했다.

“이렇게 큼직한 글씨로 전화번호를 찍어 코팅해 나눠줬더니 이것도 돈 드는 일이라며 반대하더군요. 그러나 동민들 마인드가 점점 바뀌면서 지금은 이 전화번호부를 잘 사용하고 있다는 말을 듣습니다.”

박씨는 문중일도 적극적으로 했다. 종친회의 충무를 맡아 젊은이들이 쉽게 볼 수 있도록 족보 현대화 작업을 해내기도 했다. 동민들이나 문중사람들은 이렇게 혁신적인 아이디어로 새바람을 불러일으키는 박 이장에 대해 대만족하는 분위기다.

박씨는 기독교인으로서 특별히 청각장애인들의 선교를 위해 오랫동안 헌신해 왔다. 수화에 능통한 그는 서울농아교회에서 장로로 봉사했고, 귀향한 후에는 매 주일 사천농아교회를 돕고 있다. 뿐만

아니라 그는 톱 연주가로서도 유명하다. 젊을 때부터 그는 KBS와 MBC 등 각 방송사의 TV나 라디오를 통해 널리 알려졌다. 국내외 교회와 단체를 순회하며 연주활동도 활발히 했다.

또 교회에서 아이들을 즐겁게 해주기 위해 미술도 배웠다고 한다. 기차를 타고 장거리여행을 갈 때는 차내에서 즉석 미술쇼로 벌여 승객들을 즐겁게 해주기도 한다.

## 과거 가르쳤던 제자들과 정 나누며 농산물 직거래

그러나 과거 그의 본업은 교사로서 훌륭한 사도의 길을 걸었다. 그의 가르침을 받은 제자들이 요즘도 많이 찾아온다고 했다.

“제가 제자들의 결혼 주례를 49쌍이나 했어요. 지금까지 교제하는데, 한 번씩 와서 농산물을 팔아 주기도 하고 전화로 주문도 하는데 택배로 부쳐줍니다.”

박씨가 성동고등학교에 재직할 때는 2년마다 한 번씩 자신의 고향으로 제자들을 데리고 와서 견학을 시키기도 했단다. 지금은 사회 각계각층으로 흩어져 든든히 자리 잡고 있는 제자들이 잊지 않고



▲ 밀성 충헌공파 나동박씨 영모재에서 김춘성 회장님과 함께

산골까지 스승을 찾아와 사제 간의 우정을 나눌 뿐만 아니라 유기농산물 생산자와 직거래 고객의 관계로 발전한 셈이다.

“서울에 아는 교회들을 통해서도 우리가 생산한 농산물이 많이 나갑니다.”

박씨의 부인 신정순(68세) 씨는 콩밭에 제초제를 치지 않고 일일이 김을 매어 풀을 제거하다 보니 다리에 병이 들었다고 말했다. 그렇게 생산한 콩으로 간장과 메주를 만들었으니 그것을 맛본 제자들이 계속 믿고 주문한다고 했다. 신씨는 이제 품이 덜 드는 일을 좀 해보고 싶다고 했지만 그저 업살을 부리는 말처럼 들렸다.

서울에서 남편이 귀농하겠다는 계획을 처음 밝혔을 때 한사코 반대했던 신씨는 “당신은 농사 안 해도 좋다”는 말에 억지로 설득 당했단다. 그래서 귀농 첫해는 집에만 들어앉아 손가락 하나 까딱 안 했다고 했다. 그 다음해는 남편이 들에서 가져오는 것이 있으면 집에서 가려내는 작업만 했다. 그러나 귀농 3년째부터는 남편과 같이 논밭으로 나가 일하기 시작했다고.

“지금은 농사박사가 됐어요.”

신씨가 빙그레 웃으며 말했다. 그들의 집에는 ‘천혜헌(天惠軒)’이라는 간판이 붙어 있는데 박씨의 선친이 지은 집 이름이다.

“이 집은 마산에서 초등학교 교장을 퇴직한 아버지가 고향에서 여생을 보내기 위해 마련했던 집입니다. 아버지는 1989년 돌아가셨죠. 어머니는 1995년에 돌아가셨는데, 그 후 동생 가족이 거처하다가 우리가 수리해서 들어왔어요.”

얼굴에 드러나는 나이테는 어쩔 수 없어도 박씨의 작고 다소 야윈 듯한 몸은 무척 건강하고 실팍해 보였다. 경남지방 명의였던 조부로부터 터득한 건강비법을 지킨 탓이라고 했지만 자연을 마음껏 호흡하며 노동을 즐기므로써 덤으로 얻은 축복이 분명했다.

박씨 부부는 2남1녀를 뒀으며, 다 출가시켰다. 추석을 하루 앞둔 그날 가까운 마산과 부산에서, 그리고 멀리 서울에서 자녀들이 손주들을 데리고 하나둘 돌아오면서 천혜헌은 모처럼 웃음꽃이 만발하며 활기를 띠기 시작했다.㉞



▲ 수확한 밤을 고르는 모습



▲ 칸나를 심은 밭을 돌보며...